

## 민간 기념물과 논쟁적 기억: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 지 원\*\*

### I. 머리말

세계의 다양한 기념관들을 연구한 윌리엄스(Williams 2007, 9)는 “지난 10년 동안 문을 연 기념관이 그 이전의 100년 동안 만들어진 기념관보다 더 많다”라고 언급한 2005년의 어느 비평가를 인용하였다.<sup>1)</sup> 실로 역사적 사건들을 다루는 기념관과 기념사업은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반인륜적 범죄들을 국제적 문제로 발돋움시키는 데 선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8-1-B00018). 2009년의 현지조사는 오하이오주립대의 머손 센터(Graduate Student Research Grant from the Mershon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와 손킨-버그만-와서만 가족(Sonkin-Bergman-Wasserman Families' Scholarship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Peace)에게 지원받아 수행되었다. 2009년의 조사를 도와 준 에스터와 리아에게 감사한다.

\*\*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HK연구교수, suhjiwon@gmail.com.

1) ‘기념’에는 본래 뜻깊은 일과 훌륭한 인물 등을 기린다는 뜻이 있어서 고통이나 부끄러움과 관련된 사건에 사용하는 것은 틀렸다는 견해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별 기념물의 경우에 대해서는 추모비, 위령탑 등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일반명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념비, 기념물, 기념관, 기념행사, 기념사업 등의 단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개개의 기념물에 대해 ‘기념’인지 ‘추념’인지 자의적으로 가리거나 구태여 ‘기억비’, ‘기억사업’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도적으로 기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념물을 통한 집단 기억의 보전을 법적 권리로 격상시키려는 ‘기억의 권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Reading 2011). 그러한 공식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념물과 기념사업은 일반적으로 과거청산(transitional justice, 이행기 정의)의 핵심적인 요소인 배상(reparation)의 상징적, 비물질적 형태로서, 개별 피해자들의 치유(healing)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발휘한다고 여겨진다(Huyse 2003). 그런가 하면 독일의 ‘과거극복’을 다룬 연구(전진성 2005)는 기념사업과 역사교육 등 ‘과거의 의미화 작업’은 피해자의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계몽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 전반과 그 일부로서의 기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 역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연구의 대상은 인도네시아의 현대사와 관련된 유형적인 역사 기념물 및 기념관이다. 윌리엄스(Williams 2007)의 정의를 따르자면, 기념사업(memorial)은 어떠한 인물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용도로 쓰이는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기념일이나 노래 등의 무형적(non-material)인 형태를 띠기도 한다. 기념물(monuments)은 기념사업에 속하는 부분집합으로, 조각 등 특정한 형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윌리엄스는 기념관(memorial museum)을 어떠한 집단적인 고통에 관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데에 헌정된 박물관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영광이나 위대함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하는 시설들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인 ‘고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집단 기억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었다면 기념관의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 건립된 민간(unofficial, 비공식) 기념물에 초점을 맞춘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하야 이후 1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과거청산이 지체되어 있는 인도

네시아에서 현대사의 사건들, 특히 30년이 넘게 지속된 수하르토 체제의 인권 침해 등을 민주화된 이후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한 관 주도(official) 기념물은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민간 기념물への 초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민간 기념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함으로써 기억의 정치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념물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적 논쟁 또는 그 부재를 촉발할 수 있을까? 민간 기념물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는 무엇이며, 관 주도 기념물과 민간 기념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민주화 이후의 국가가 새로운 정치적 맥락에 맞는 기념사업, 특히 ‘집단적인 고통’에 관한 역사기념사업을 방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러한 질문은 시사적인 의의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정치적 공동체가 기억을 통해 지속시키거나 극복해야 할 가치를 담는 매개로서의 기념물과 기념관은 공동체가 구성 및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등장하는 기획으로서, 관 주도 사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 기념물로 그 자리를 채우려는 시도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향후 관 주도의 기념사업에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관 주도 기념물이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부담을 비롯하여 비용을 비교적 적게 치르고도 건립할 수 있는 민간 기념물은 관 주도 기념물이 담아내지 못하는 대안적인 관점들을 대변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장점은 한계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저비용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념물은 방문자를 불러 모을 만한 홍보의 역량이 없거나 아예 기념물 자체를 유지하지 못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의미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적 논쟁 없이 각자 다른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민간 기념물들이 생겨날 경우 정치적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기념물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이 글의 논지와 관련된 민간 기념물의 정치적 가능성을 탐색하며,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공식·비공식 기념물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인도네시아의 민간 기념물 사례는 1998년 ‘5월’을 기념하는 자카르타의 ‘바늘 기념비’(Prasasti Jarum Mei 1998), 2004년 암살당한 인권운동가 무니르를 기념하는 동부 자바 바투(Batu)의 무니르의 집(Omah Munir), 그리고 수하르토 대통령의 고향인 족자카르타 근교 마을에 건립된 수하르토 박물관(Museum Soeharto)<sup>2)</sup> 등 총 3건을 대상으로 하여 건립 배경과 주체, 조형물 또는 전시의 내용과 운영 실태 등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사례 연구가 민간 기념물과 관 주도 기념물의 관계에 대해 갖는 함의를 짚으며 논의를 정리한다.

## II. 민간 기념물과 기억에 관한 논쟁: 선행연구 검토

이 연구에서 말하는 민간 기념물이란 위에서 정의한 유형적인 기념물 및 기념관 중 건립과 운영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민간인 경우를 가리킨다.<sup>3)</sup> 그렇지만 공식·비공식, 관 주도·민간 기념물의 차이는 언제나 명확하지만은 않다. 민주화 이후 칠레의 기념물을 다룬 한 연구(Collins 2011)는 칠레에서 공식 기념사업 기획은 지금까지 단 하나 밖에 없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 다루는 기념물의 대부분은 시민사회가 먼저 제안했을 뿐 건립과 유지에 국가 재정이 사용되었고, 건립 과정에서도 국가가 사업 진행에 깊이 개입하여 민간 주도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2) 족자카르타라는 지명은 족자카르타특별주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 안에 포함된 족자카르타시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뒤에서 설명하듯이 수하르토 기념관은 시 외곽, 특별주 안에 있다.

3) 개인의 집에 설치한 제단 등 공공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건립과 운영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에는 관 주도 기념물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민간 기념물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또는 엔지오(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기구)가 주도하여 건립하는 기념물은 자체 자금이나 모금, 기부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해외 원조의 경우에는 그 자금이 민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념물이 건립되는 해당 사회 내에서의 논쟁과 합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기에, 민간 기념물과 유사한 특징을 더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관 주도 기념물과 민간 기념물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최근 관이 주도하는 기념사업은 통합적 민족정체성의 강화라는 민족주의의 목표를 넘어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에게 가해국인 독일이 헌정하는 기념물(Young 1997), 남미 독재정권에 의한 고문과 실종 등에 대해 인류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조망하는 기념물(Bilbija and Payne 2011) 등 다층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세기까지 서양에서 위대한 전쟁 영웅들을 찬양하고 추모하는 고전적인 기념물들이 공식 기념물의 주종을 이루었다면, 각지에 세워진 ‘무명용사의 비’로 대표되는 1차대전 기념물들은 전통적인 영웅주의와 애국주의를 넘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름없는 병사들의 운명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전몰 군인들의 이름을 나열한 2차대전 기념물들의 전신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민족국가의 정체성 심화를 위해 추모의 상징적 의미가 전유될 수 있었던 1차대전이라는 비극에 비해 2차대전이 낳은 홀로코스트와 히로시마 등의 인류사적 대참사는 민족주의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크나큰 부담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식 기념사업에도 새로운 목표들이 도입되었다(Winter 1995). 영광의 역

사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의 역사, 고통의 역사 등 서로 다른 원리로 구성된 기념사업의 원형적 모델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양차대전과 최근 유고분쟁 등의 사태를 겪으며 서구 각국이 민족주의적 영광을 주제로 한 기념과 거리를 두고, “과거를 찬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반성하기 위해서”(전진성 2005, 216)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는 경향은 기념물이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여겨지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기념물에 대해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접근한다면, 민간 진실규명 사업(unofficial truth projects)을 관의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와 대비한 다음의 설명(Bickford 2007)을 민간 기념물과 공식 기념물의 차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 진실규명 사업보다는 관의 진실위원회가 더 전사회적인 대화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에 비해 민간의 사업은 지위와 인정, 가시성을 획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재정, 사무실, 인력 등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핵심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반면 민간 진실규명은 소규모 공동체 수준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으며, 관의 진실규명이 정치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왜곡될 경우에는 민간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티모르의 민간 기념물을 다룬 한 연구(Kent 2011)는 대안적 가치를 내세운다는 민간 기념물의 특징에 주목한다. 신생 독립국 동티모르의 정치 지도자들은 특정한 관점의 과거사를 지지하는데, 관 주도 기념사업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관점은 희생과 국민통합, 해방의 가치를 앞세운 영웅적이고 승리적인 서사이며, 서사의 주인공은 민족해방의 투사들, 특히 동티모르 민족해방군(FALINTIL, 팔린틸)이다. 이러한 ‘영광의 역사’가 1975년의 정치적 공백기에 벌어졌던 내전 등 ‘부끄러움의 역사’를 은폐하고, 투사가 아닌 피해자들을 서사에서 배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에 세워진 민간

기념물들은 1999년 인도네시아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의 사건을 ‘영광의 역사’로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공적으로 추모하는 장을 마련한다.<sup>4)</sup> 그런데 이와 같은 대안적 가치의 ‘백화제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대화의 부재 및 정치적 논쟁의 생략과 연결된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관점의 과거만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sup>5)</sup>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공식 기념물은 혁명, 전쟁, 영웅 등을 일방적인 장엄함으로 기념하는 절대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와는 달리 건립 이전과 이후에 의견 불일치의 씨앗이 될 수 있다(Tai 2001; Bilbija and Payne 2011). 기억의 공간을 정비하여 “다중적 기억의 단순화와 분산적 기억의 단일 초점화”(정근식 2013, 370)를 이룬다는 관 주도 기념의 목표는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국립묘지를 놓고 치열한 이념 갈등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속에서 화해와 통합을 실천”(하상복 2014, 24)한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관찰하면 ‘화해와 통합’보다는 ‘치열한 갈등’만이 두드러진다. 민주주의 하에서의 공식 기념물은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른 세력들 간의 논쟁 자체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격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때도 많지만, 이러한 결과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가치의 다원주의와 이로 인한 감정적 적대는 부정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성격이며(Mouffe 2000), 과거사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화합과 합의가 불가능할 바에야 논쟁을 차단하는 선부른 화해보다는 정치적 참여와 경쟁을 불러

---

4) 다만 민간 기념물이 국가 기념물에서 빠뜨린 모든 측면을 다 다루는 것은 아니다. 1975년 내전은 민간 기념물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다고 한다.

5) 정치적 편향을 민주주의적 다원성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기념물들이 서로 다른 진실들을 옹호하는 상황이 사회적 논쟁 없이 계속된다면 이것을 다원성의 가치로 긍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으키는 갈등적 논쟁이 더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견해(Payne 2008)에 따르면 공식 기념물에 따라오는 의견 불일치는 민주적 심화의 청신호로서 장기적으로는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기념물이 수반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가능성은 오히려 정치적 논쟁의 심화보다는 그것의 부재와 더 관련되어 있다. 민간 기념물이라고 해서 기념물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다룬 야마다 쇼지(2008)에 따르면, 대다수의 민간 추도비 또는 위령비가 희생자의 민족적 소속이 분명하지 않은 ‘무연불’로 되어 있으며 학살 주체도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이는 추도비 건립 주체의 ‘사상적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 주류 사회의 눈치를 본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예산이라는 재정적 자원과 국가의 공식 인정이라는 상징적 자원의 무게는 사회적 논쟁의 가능성을 더욱 높인다. 야마다(2008, 55-56)의 연구에서도,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자를 조선인이라 해야 할지 한국인이라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일 자체만으로도 힘이 드는 일일 것이라 여겨져” 지방자치단체에의 건의를 철회하고 개인으로서 조선인 피해자들을 위한 추도비를 건립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눈치를 적게 보고 대안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민간 기념물의 장점이지만,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가치를 담은 기념물이 논쟁적 소통 없이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최악의 경우,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적 진영들이 각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진실’만을 옹호하는 민간 기념물을 정치적 양극화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황마저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념물은 비용 부족과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의미하게 남을 가능성도 있다.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공동체의 구성 과정에서 정체성의 확립과 재확립에 기여하려면 기념물이 의도한 바



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념물은 “관람객들의 상호 작용과 의미의 전유를 통해”(Wilke 2013, 139)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관람객들이 하나의 기념물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념물의 의미는 건립 주체가 의도한 바와 달리 진화해 나갈 수도 있다(Jelin 2007). 이처럼 기념물의 사회적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해석되는 한편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애초에 기념물의 의미가 관람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방향에서든 사회적 대화와 상호작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념물은 개인의 집안에 마련한 제단이나 다를 바 없으며,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공의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민간 기념물은 운영비 등 여러 이유로 관이 운영하는 기념물보다 이러한 정치적 무의미함을 낳을 가능성이 더 크다.

### Ⅲ.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민간 기념물 사례 연구

#### 1. 인도네시아의 민간 역사기념물 현황

인도네시아의 공식 역사 기념물은 대부분 1966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된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그대로 남아 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기존의 기념관이 없어지거나 극적으로 변화된 내용을 담고 운영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 수하르토 체제의 ‘군사화된 역사’(McGregor 2007)는 그대로 남아 있는 반면, 민주화라는 정치적 맥락에 맞추어 새롭게 조성된 기념물은 거의 없다. 즉 수하르토 체제의 역사는 오로지 독립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군부가 중심이 되어 민족의 배신자인 공산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처부순 ‘영광의 역사’로만

기록되고, 학살 등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부끄러움의 역사’ 내지는 ‘고통의 역사’로서 기억하려는 시도는 전무하다. 그렇다면 대안적 관점을 내세우는 민간 기념물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데, 민간 기념물도 양적·질적으로 빈약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역사박물관에 대한 한 연구(Schreiner 1997)는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의 모나스(Monas, ‘독립기념탑’) 지하에 있는 박물관처럼 어떠한 기념물에 속한 부류, 네덜란드의 요새를 개조한 족자카르타의 요새 박물관(Museum Benteng Yogyakarta)처럼 사적을 사용하는 부류, 군부가 관리하는 박물관, 유명인의 자택을 개조한 박물관, 공산당 반역 박물관(Museum Pengkhianatan PKI)처럼 특정한 주제 또는 시기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 등 총 5가지 부류의 역사박물관이 있다고 분류하는데, 어떤 부류이든 수하르토 시대의 전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특히 옛 공산당원들의 참정권이 회복되고, 이들의 증언을 담은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가 다수 만들어지는 등 일정한 변화를 겪은 이후에도 수하르토 정권의 시발점이 된 1965년 10월 1일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공식 기념물의 묘사는 여전하다.<sup>6)</sup> 수하르토가 직접 지시하여(McGregor 2007) ‘쿠데타 시도’ 당시 살해된 6명의 장군과 장교 1명의 시체가 처리된 루방부아야(Lubang Buaya, ‘악어 구덩이’) 근처에 건립한 ‘신성 뻘짜실라 기념비’(Monumen Pancasila Sakti) 단지에는 공산당의 잔인성이 묘사되어 있을 뿐(서지원 2012), 뒤이어 수십만 명의 공산당원 및 동조자들이 학살되었다거나 투옥 등 고초를 겪었다는 이야

6) 쿠데타 세력은 스스로를 ‘9월 30일 운동(Gerakan 30 September, G30S)’이라고 불렀지만, 실제 그들의 작전은 자정이 지난 후인 10월 1일 새벽에 수행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이 ‘9월 30일 운동’을 줄여서 나치를 연상케 하는 게스타푸(Gestapu)라고 부르는데 대항하여 일각에서는 이 사건을 게스톡(Gestok), 즉 ‘10월 1일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1965년 당시 수카르노가 사용했던 명칭이다.

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기념관 단지의 전시물들은 “괴물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강력한 이미지를 전달함으로써 공감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오로지 공산주의자들만이 가해자로 인정되고, 오로지 반공 장성들과 어린 여자아이 한 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공식적 설명”(Vickers 2010, 48)을 제공한다.<sup>7)</sup> 유사한 기념비들이 지역 군부대에 의해 전국 각지에 건립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적 민간 기념물은 찾아볼 수 없으며, 드물게 열린 화해의 행사마저 군부가 세운 승리의 기념비 앞에서 개최된 실정이다(Asvi 2005).<sup>8)</sup>

수하르토 하야 이후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수하르토 체제의 공식 역사박물관에 맞서는 대안적 민간 프로젝트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기념관 수준의 시도 중 두 가지는 실무적 어려움으로 현재 상설 운영되지 않고 있다. 발리 덴파사르의 ‘65년 정원’(Taman 65)은 공산당 집안 출신(‘anak PKI’)인 지역의 엔지오 활동가와 학자 형제에 의해 건립되었다(Vickers 2010). 2005년 7월에 문을 연 ‘65년 정원’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로 1965년 피해자들의 경험을 ‘물질적으로 기념’하는 공간이라는 의의가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개입한 젊은 활동가들은 세계 각지의 기념물을 참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카르타의 반공 기념물을 의식하고 이에 대항하는 대안적 기념비를 만들려고 했다(Dwyer 2011).<sup>9)</sup> 그러나 ‘65년 정원’은 확대 가족이 거주하는 사유지 내의 정원으로서 누구나 와서 관람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초반에는 공연과 전시 등의 행사가 열렸지만 상설 전시를 통해 대안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7) 1965년 10월 1일 쿠데타 세력이 장성들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나수티온(Nasution) 장군의 6세 딸이 희생된 바 있다.

8) 행사가 열린 곳은 동부자바의 블리타르이다. 한편 중부술라웨시 팔루의 시장 루스디 마스투라(Rusdi Mastura)는 2012년부터 1965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거둬 사과하며 기념비 건립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기념비 건립 부분은 현실화되지 못한 것 같다.

9) 또한 그들은 2002년 발리 테러 기념비도 참조했다고 한다.

에는 실패했다.

2011년 4월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에 티카르 판단(Tikar Pandan, ‘판단 앞 돛자리’)이라는 문화단체가 주도하여 차린 인권박물관(Museum HAM, Hak Asasi Manusia)의 운명도 유사하게 끝났다. 단체 사무실의 마당에 있는 별채를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30년간 지속된 아체의 독립투쟁 시기에 발생한 학살과 실종 등 인권 문제를 설명한 패널 위주로 전시를 꾸려 일반에 개방하였으나(Rhoads 2011), 2013년 초 단체가 이사하면서 상설 전시 공간은 없어지고, 간혹 패널 전시를 지역의 대학 등에 대여하는 사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체의 인권박물관 역시 관이 제공하는 역사적 기억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표방하며 출발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현재 건립된 지 3년이 경과한 민간 기념물 중 남아 있는 것은 1998년 5월 수하르토 반대 시위 중 사살당한 4명의 트리삭티대학교(Universitas Trisakti) 학생들을 기리기 위해 학교에서 구내에 설치한 ‘5월 12일 비극 기념실’(Museum Tragedi 12 Mei) 외에는 기념관에 비해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기념비 내지는 추모비의 형태를 띠는 기념물들로, 북부아체에 건립된 1999년 크라프트지공장 교차로(Simpang KKA) 학살 위령탑, 남부아체 잠부크폭(Jamboe Keupok) 마을에 만들어진 2003년 학살 추모비,<sup>10)</sup> 트리삭티대학교 구내의 민주화영웅탑(Tugu Pahlawan Reformasi),<sup>11)</sup> 그리고 다음 절에서 다룰

10) 2011년에 건립된 잠부크폭 추모비는 조금 큰 묘비 수준인 반면, 일찍이 2008년부터 건립이 시작된 크라프트지 공장(PT Kertas Kraft Aceh) 사거리 위령탑은 높이가 7m나 되는 규모이다(Rhoads 2011; Mustafa 2012).

11) 2014년 10월에는 캠퍼스 바깥의 대로변에도 2.4m 높이의 기념비가 설치되었다. 이에 대해 ‘자카르타 정부가 건립했다’라는 언론의 설명도 있으나(Septiana 2014), 다른 기사를 보면 트리삭티대학교 측이 7천만 루피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정부가 건립 주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리삭티대학교 동문인 아혹 주지사가 학생들과 기념물 건립에 대해 토론한 적이 있고, 준공식에 참여하려다 취소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Persiana 2014).

바늘 기념비 정도이다.

아체에서는 2004년 말 20만 여명의 희생자를 낸 인도양 쓰나미 이후의 재건 과정에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아체 쓰나미 박물관(Museum Tsunami Aceh)을 비롯하여 쓰나미 공동묘지, 발전선 PLTD Apung 기념비 등 쓰나미를 위한 기억의 공간은 많이 조성되어 있으나(Tempo 2014/12/28, 98-100),<sup>12)</sup> 쓰나미와 더불어 종식된 유희의 분쟁에 대한 기억의 정치는 활발하지 못했다. 록스마웨(Lhokseumawe) 시 근교에 건립된 크라프트지공장 교차로 학살 위령탑은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비록 중앙정부는 아니고 지방정부(kabupaten 단위)의 예산을 들인 것이기는 하나, 정부 예산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를 기억하는 데 사용한 사례인 듯하다.<sup>13)</sup> 트리삭티대학교의 경우 캠퍼스가 비교적 넓고, 학교 측에서도 때문에 ‘민주화 영웅의 캠퍼스’라고 내거는 등 기념사업에 긍정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부지와 건립비용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편이었으나, 이러한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네시아의 민간 기념물은 양적·질적으로 빈약하고 제한적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세 가지 민간 기념물은 모두 최근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진 후 몇 년이 흘렀지만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사례들이다. ‘무니르의 집’과 수하르토 기념관은 2013년에 문을 열었으며, 바늘 기념비는 2009년에 건립되었지만 최근에야 자카르타 정치 지형의 변화와 관련되어 언론에 소개되고 있다. 이 세 가지 기념물 모

12) PLTD는 디젤에너지발전을 가리키는 약어로 생각된다.

13) 인도네시아의 지방정부에는 1단계(tingkat I)인 주(provinsi)와 2단계인 시·도급(kota/kabupaten)이 있는데, 위령탑은 2단계인 북부아체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애초에 독립운동 세력이 강했던 데다 피해자들이 엔지오와 함께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공개 증언 위주의 민간 진실규명 사업을 벌이는 등 민간 주도의 기억의 정치가 활발했기 때문에, 분쟁 종식 후 지방정부 권력을 잡은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예외적으로 위령탑이 건립될 수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탑의 위치 등을 둘러싸고 피해자 단체와 지방정부의 대립도 심했다고 한다(Rhoads 2011; Mustafa 2012).

두 가까운 미래에 현실 정치의 문제와 관련되어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주제를 다루고 있는 데다, 아체의 기념물들(서지원 2013)과 발리의 65년 정원(Vickers 2010; Dwyer 2011)이 기존 문헌에 소개되어 있는 데 비해 아직 학술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의 가치가 특히 크다고 판단했다.

## 2. 1998년 5월 바늘 기념비

바늘 기념비는 1998년 5월 자카르타 등 대도시를 휩쓴 폭동의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조형물로서, 동부자카르타 클렌더(Klender) 지역의 자티 슬라탄 마을(Kampung Jati Selatan) 어귀에 설치되었다가 인도네시아 여성위원회(Komnas Perempuan, 정식 명칭은 ‘여성폭력방지국가위원회’) 마당으로 옮겨졌다. 조형물의 접근하기 힘든 위치 탓에 “1998년 5월에 발생한 일에 대한 공공의 기억을 보듬기 위한 시도”(Pebriansyah 2014)로서 설치되었다는 의도를 실현하지 못하다가, 최근 여성위원회가 1998년 5월 기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새로이 부여받게 되었다. 가장 보수적인 통계를 참조하더라도 수백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하는 1998년의 폭동에 대해 국가가 사건 직후 합동진상조사팀(Tim Gabungan Pencari Fakta)을 결성한 것(Purdey 2006) 이외에는 화해나 보상 등의 조치를 전혀 실행하지 않고 마치 그러한 비극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방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늘 기념비는 이와 관련된 기념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망각에 저항했다는 것 자체로 대안적인 의미를 갖는다.<sup>14)</sup> 또한 향후 정국의 전개 방향에 따라 이 기념비가 인도네시아

---

14) 국가인권위원회(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Komnas-HAM) 역시 임시인권법정법에 의거하여 5월 폭동 예비조사 보고서를 펴낸 바 있으나 보고서의 법적 근거가 다를 뿐 그 내용이 합동진상조사팀 보고서에 비해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기

사회의 종교적·종족적 폐쇄성에 저항하는 정치적 의미를 상징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조형물을 처음 설치한 주체는 ‘솔리다리타스 누사 방샤’(Solidaritas Nusa Bangsa, 이하 SNB)라는 엔지오로, 2000년 법률구조재단(LBH) 출신의 중국계 인권변호사인 에스터 유수프(Ester Yusuf)가 인종차별 반대를 내걸고 만든 단체이다(Hera 2001). 이 단체는 중국계가 피해를 입은 국가폭력과 관련된 사업을 중점 영역으로 삼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1950년대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시민권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던 바페르키(Baperki, ‘인도네시아 시민권협의회기구’)와 그 회원들을 공산당 동조자라고 하여 탄압했던 ‘1965년 사태’와, 자카르타와 메단·솔로 등 대도시를 휩쓴 폭동의 와중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약탈과 폭력, 강간 등의 피해를 입었던 1998년 5월 사태가 대표적이다.<sup>15)</sup> 그렇다면 이 조형물은 왜 많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1998년 5월 당시에 약탈과 방화의 표적이 되었던 데다 구시가지의 상업 지구로서 외부인이 찾아가기도 쉬운 글로독(Glodok)이나 파사르 바루(Pasar Baru) 등의 지역이 아니라, 자카르타의 빈민가로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찾아보기 힘들며, 주민의 대부분이 일용직이나 이주노동, 소상공인 등으로 생계를 잇는 동부자카르타 클렌더의 마을에 세워진 것일까?<sup>16)</sup>

하나의 이유는 피해자 운동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1998년 5월 사태의 중국계 피해자들이 전혀 공적 활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글로독을 다룬 한 연구(Kusno 2010)에

---

는 힘들다.

15) SNB는 1965년 학살과 관련하여 2000년 피해자 중심의 단체 YPKP가 주도한 워노소보 집단학살 무덤 발굴을 도왔고, 2년 후에는 블리타르에서도 무덤을 발굴한 바 있다.

16) 필자의 자티 슬라탄 마을 방문 필드노트(2009/07/14).

의하면,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글로독 플라자가 불타 무너진 지 1년이 되는 날 이마에 흰 끈을 묶고 촛불시위를 벌였으며, 2001년 5월에도 글로독 시장 앞에서 3년 전의 사진 등을 들고 소복을 입은 채 기념행사를 열었다. 그러나 중국계 피해자들은 가족과 마을 단위에서의 기념행사는 열었을지언정 인권엔지오가 ‘육성’(mengangkat) 및 관리하는 피해자 운동에 집단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2003년 5월 초에 인권엔지오인 엘삼(Elsam) 등이 전국 피해자의 만남(Temu Korban Nasional)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120명가량이 모였을 때, 이 중 10% 정도가 1998년 5월 피해자였지만 중국계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어느 관찰자는 기록한다(Thufail 2007). 엔지오의 활동에 참여하는 1998년 5월 피해자 그룹은 두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데, 두 그룹 다 자카르타의 빈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티 슬라탄 마을 주민들은 그 중 한 그룹에 속해 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SNB가 만일 중국계 약탈 피해자들의 지역에 기념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계획의 추진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의 다수가 피해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티 슬라탄 마을에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1998년 5월 피해자의 구성 자체이다. 1998년 5월 사태가 낳은 수백 명의 사망자들 중 절대 다수는 중국계가 아니라 약탈에 따라나섰다가 불붙은 쇼핑몰 안에서 숨진 도시빈민들이었다.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피해자 그룹의 지도자들도 모두 그렇게 사망한 아들을 둔 어머니들이며, 자티 슬라탄 마을은 ‘족자 플라자’(Yogya Plaza)라는 쇼핑몰에 갇혀 숨졌다고 하는 사망자 426명의 대부분이 거주하던 곳이었다(Pebriansyah 2014). 1998년 5월 직후에 국내외적 관심이 약탈과 강간 피해를 입은 중국계 피해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5월 사태 당시 구호 활동과 진실



규명 활동 등을 펼치던 엔지오 트룩(TRuK, Tim Relawan untuk Kemanusiaan) 등의 노력으로 자카르타 도시빈민들의 죽음이 5월의 주요한 인권 문제로 떠올랐다.<sup>17)</sup> 이들의 주장은 5월 사태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와 수하르토 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겹친 가운데서 트리삭티대학교 학생들의 죽음을 추모하려던 열기가 먼저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폭동이 아니라, 군부의 고위층이 관련된 조직된 폭력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이 조사한 목격자들에 따르면 치안의 공백 가운데서 훈련받은 군인이나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선동꾼들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약탈을 선동하고, 방화 도구를 가져와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학자들이 이러한 목격담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중국계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종족적 반감 등의 동기로 약탈에 참여한 이들의 행위자성 역시 인정하는 데 반해(Sidel 2006; Purdey 2006), 인권엔지오들은 5월 사태의 ‘본질’에 대해 “프리부미(pribumi, 토착민)가 중국계를 공격하여 약탈한 것이 아니라, 줌도독들도 참가했지만, 군부가 중국계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 이들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계가 아닌 빈민들도 피해를 입은 사건”<sup>18)</sup>이라고 정리한다. 도시빈민 약탈자들을 가해자로, 중국계를 피해자로 간주하던 인식은 틀렸으며, 군부 혹은 국가가 폭력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가해자이고 중국계와 비중국계 도시빈민은 다 같은 피해자라는 것이다.<sup>19)</sup>

17) 여기에는 애초에 ‘조직적 집단 강간’이라며 널리 알려졌던 강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문제도 있었다.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5월 폭동 예비조사팀 서기로 활동했던 에스터의 신문 인터뷰(Junaidi 2006)를 보면, 당시 많은 중국계 여성이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에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었다. 조사팀이 비록 피해자들의 증언은 많이 확보하지 못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은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18) 필자의 SNB 인터뷰(2009/07/13).

19) 그러나 공식 담론과는 별개로 도둑을 피해자라고 부르는 데 대한 도덕주의적 반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Thufail(2007)에 의하면, ‘피해자의 만남’ 행사에서 5월 피해자

바늘 기념비가 아체나 일본의 추모비, 위령비와는 달리 피해자의 명단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범주를 특정하기보다는 모호하게 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 안테나 접시로 착각할 만한 하얀 원반에 실이 꿰어진 바늘이 놓인 이 조형물의 밑에는 “1998년 5월 13-15일에 일어난 인도적 비극(tragedi kemanusiaan)의 피해자들에 대한 경의로 세워진 이 비는 민족의 상처들을 꿰매어 치유하고자 하는 결연한 상징이자 소망, 삶을 일으키려는 마음의 진실함의 표시이다. 5월을 기억하는 마을, 2009년 5월 15일 금요일”라는 문구가,<sup>20)</sup> 옆의 벽에는 인도네시아의 저명인사들이 5월 사태에 대해 남긴 문구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대부분이 추상적인 수준에서 폭력과 차별에 반대하며 정의, 진실, 화합 등의 가치를 옹호하는 가운데 어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청년 지도자는 ‘엘리트의 음모’를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다.<sup>21)</sup> 국가와 군부의 엘리트에 의해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1998년 5월이라는 비극을 화해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소규모 엔지오가 주도하여 건립했고, ‘인도적 비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소 모호하게 묘사하고 있는 데다, 외부인이 찾기 힘든 주거

---

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던 것은 낙인이었다고 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인권운동가 중에도 도둑질하러 쇼핑물에 들어간 사람들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며, 두 그룹의 피해자, 즉 중국계 피해자들과 몰을 털러 들어갔던 피해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뭉뚱그려 버려서는 안 되고 이 지점에 대해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었다(인터뷰, 2010/05/02).

- 20) 필자의 번역. 원문은 “didirikan sebagai penghormatan bagi/para korban tragedi kemanusiaan/13-15 mei 1998//inilah lambang tekad dan harapan/menjahit dan menyembuhkan/luka-luka bangsa tanda ketulusan/hati dalam membangun kehidupan//kampung kenangan mei/jumat 15 mei 2009”이다. 2009년 7월 14일에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이 문구가 새겨진 판이 마을의 한 집에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고, 조형물 자체에는 어떠한 텍스트도 붙어 있지 않았다.
- 21) 중국계 피해자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구는 없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의 한 부분이다. 바페르키나 SNB도 단체 이름에 중국과 관련된 단어를 넣지 않았다.

지역에 위치한 이 조형물이 당시 정치적 의미를 활발하게 생산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2011년경부터 여성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기념사업(Napak Reformasi)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성위원회 마당으로 이전된 바늘 기념비는 5월 기념사업의 선구자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sup>22)</sup> 2013년부터 자카르타 주정부와 기념사업을 협의해 온 여성위원회는 2014년 5월을 맞아 주정부에 5월 폭동과 관련된 핵심적인 장소들을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바늘 기념비와 당시 불타 죽은 시체들이 묻힌 동부자카르타의 폰독 랑곤(Pondok Ranggon) 묘지 등이 그 명단의 맨 앞에 있었다. 그 외에도 여성위원회는 자카르타 주정부에 바늘 기념비를 보수하는 동시에 폰독 랑곤 묘지에 새로운 기념물을 건립할 것을 건의했고, 주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부지사가 기공식에 참가하기도 했다(Indah and Corry 2014; Timi 2014).

보통 중국식 이름을 딴 ‘아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바수키 부지사가 5월 기념사업에 나선 데에는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조코위Jokowi’) 주지사의 대통령 당선 이후 최초의 중국계이자 개신교도 주지사로 취임한 그의 개인적 배경을 뛰어넘는 정치적 의미가 있었다. 당시 2014년 7월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코위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던 육군 고위 장성 출신의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후보는 1998년 초 이슬람 단체 등을 동원하여 의도적으로 반중국인 감정을 부추긴 인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5월 폭동의 군부 조종설에는 폭동의 도화선이 된 트리삭티대학교가 중산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대학교로 기존 학생 시위의 중심이 아니었고

22) 애초에 여성위원회는 1998년 5월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기구이다. 바늘 기념비가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는 손상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질 위험 때문이었다고 하는데(Komnas Perempuan 2011), 아무래도 SNB가 여러 문제에 활동을 중단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1950년대 설립 당시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바페르키대학교였다는 점, 누가 학생들에게 충격을 가했는지 석연치 않다는 점 등 각종 의혹이 따라다녔으며, 프라보워 후보가 폭동을 조종했다는 점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확실하게 밝혀진 적은 없으나 이미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여론의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Purdey 2006).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이 재계에서의 위상과는 달리 정계에서는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라보워의 그린드라(Gerindra)당이 2012년에 ‘아혹’ 현 주지사를 발굴하여 자카르타 부지사 후보로 내세운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그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었으나, 아혹은 오히려 5월 기념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대선 이후 주지사 취임을 앞두고 그린드라당을 탈당했다. 주지사 선거 당시부터 인종적, 종교적 배경과 관련하여 흑색선전에 시달렸지만 결국 5월 폭동 이후 16년 만에 중국계로서 자카르타를 이끌게 된 아혹이 앞으로 5월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자카르타의 인종적·종교적 다양성 내지는 화합을 상징하는 그가 1998년 5월을 기념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 될지 주목된다.

향후 5월 기념사업의 내용이 어떤 쪽으로 흘러가든 간에 ‘바늘 기념비’는 그 원형으로서 최초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며, 프라보워 후보 대 조코위 후보의 대선 경쟁이 드러내듯 ‘페쇄적 이슬람 대 사회적 다양성’이 인도네시아 정치의 가장 중요한 균열로 부상한다면 ‘바늘 기념비’와 1998년 5월의 기억은 더욱 큰 정치·사회적 의미를 띠고 재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 3. 수하르토 기념관

수하르토의 가족이 그의 출생지인 족자카르타특별주 반툴(Bantul)의 농촌에 건립한 수하르토 기념관은 3,620평방미터의 부지에 조성되어 있으며, 기념관 이외에도 동상과 자바식 정자(pendopo), 우물, 마스지드, 가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념관 전시의 내용은 수하르토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룬 성취보다는 그의 군인 정신과 민족의 수호자로서의 역할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논란이 될 만한 서술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수많은 관람객이 매일 찾는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자비로 설립한 민간 기념물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전시 내용에 대한 공적인 논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2013년 3월 1일, 수하르토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알려진 1949년 3월 1일의 족자카르타 공격을 기념하여 제막식이 열렸는데, 이 때에는 아직 기념관은 완공되지 않았고 3미터가 넘는 높이의 수하르토 동상만이 공개된 것으로 보인다(Bagus 2013). 개관식은 같은 해 6월 8일 수하르토의 생일에 맞추어 열렸으며, 수하르토 기념관의 건립에 100억 루피아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이복동생 프로보수테조(Probosutedjo)와 수하르토의 큰딸이 주관한 이 행사에는 복지부총리(Menko Kesra) 아궁 락소노 등 현직 장관급 3명과 하누라당(Partai Hanura)의 위란토 등 군부와 골카르당(Partai Golkar) 출신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다(Slamet and Bambang 2013;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sejahteraan Rakyat 2013).<sup>23)</sup> 10월에는 유도요노 대통령이 기념관을 방문했으며(Kompasiana 2014/01/04), 운영진은 개관 이래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9만 3천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는 수치를 내놓았다(Andreas 2013). 프로보수테조

23) 그전날 밤에는 3만여 명이 솔로의 수하르토 무덤을 참배했다고 한다(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sejahteraan Rakyat 2013).

는 자카르타 촌다나 거리(Jl. Cendana)의 자택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각지에 수하르토 기념물을 세울 계획을 밝혔으나(Jakarta Post 2013/04/02), 현재 더 이상의 기념물 건립에 대해서는 보도되고 있지 않다.

2013년 이전까지 ‘수하르토 박물관’이라고 하면 수하르토의 부인 티엔 여사(Ibu Tien)가 주도하여 만든 ‘아름다운 미니 인도네시아’, 즉 타만미니 공원에 1993년 개관한 푸르나 박티 퍼르티위 박물관(Museum Purna Bhakti Pertiwi)을 가리켰다. 거대한 3층 건물에 수하르토 대통령 부부가 재임 시절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서 받은 모든 선물을 전시해 둔 이 박물관(Allen 2001)을 제외하고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특별히 기념하는 시설은 없었다. 족자카르타의 요새 박물관에 1949년 공격 당시의 수하르토의 공적이 강조되어 있기는 하나 엄격히 말해 이것을 수하르토 개인에 대한 기념 시설로 볼 수는 없으며, 루방부아야와 ‘신성 뽀짜실라 기념비’ 등 수하르토 시대에 군부가 건립한 기념물에도 수하르토 개인의 역할이 확연히 드러나 있지 않다. 2008년 수하르토의 사망 이후 추도식 등의 행사는 그가 묻힌 솔로의 묘지에서 치러 왔다. 그렇다면 왜 수하르토의 사후 5년, 하야 이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인 2013년이라는 시점에 그를 기념하는 시설이 건립된 것일까?

단기적인 정치적 동기, 즉 수하르토 가족 구성원들의 정계 진출과 관련하여 기념관을 해석하는 논자도 있다(Jakarta Post 2013/04/02). 실제로 2014년 4월 총선에서는 ‘티틱’(Titiek)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수하르토의 셋째딸 시티 헤디아티 하리야디(Siti Hediati Hariyadi)가 수하르토 기념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골카르당 국회의원 후보 명부 1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며, 그의 전남편인 프라보워 후보는 7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조코위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낙선했다. 필자가 2014년 대선 직전의 주말에 수하르토 기념관을 방문했

을 때에도 기념관 근처 길목 곳곳에 프라보워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으며, 기념관 입구에서는 프라보워 후보의 얼굴을 담은 배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다.<sup>24)</sup> 수하르토의 아들인 토미(Tommy)도 정계 진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수하르토 가족 다수는 정계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기를 원했으며, 기념시설을 통해 수하르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분명 그들의 정치적 인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수하르토 기념관의 주요 목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기념관이 나라에 대한 수하르토 개인의 기여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데다, 수하르토의 기여 중 특정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수하르토 기념관 단지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자바 농촌 출신이라는 수하르토의 태생이다.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연못에는 물소를 타고 노는 아이들의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원 맞은편에는 ‘수하르토 대장군 기념관’(Memorial Jenderal Besar H.M. Soeharto)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붙은 가설벽이 서 있는데, 수하르토의 덕성을 강조하는 문구가 자바어로 튀어나와 있다.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바식 정자 뒤편에는 우물이 있고, 입장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우물이라는 설명을 듣게 된다. 이곳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는 수하르토 가문의 신비한 힘을 과시하는 장치인 것이다.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바 신비주의 전통에 심취해 있었고, 자신에 대해 “인도네시아라는 정치적 우주의 진원지로서 군림하는 지도자라고 여겨지기를 원했다”(Liddle 1991, 410)라는 평가를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경향인 데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신비화는 수하르토 자녀들이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기념관을 들여다보면 수하르토 대통령이 그러한 지

24) 필자의 수하르토 기념관 방문 당시 필드노트(2014/07/05).

도자로서 3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간략하다.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 이룬 업적에는 기념관의 출구 직전에 설치된 긴 벽 하나만이 할애되어 있다. 기념관의 다른 전시에는 아낌없이 쓰이고 있는 터치스크린이나 디오라마도 없이 오로지 글과 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주요 전시 내용은 수하르토가 대통령 재임 당시 외국 정상들과 찍은 사진, 시찰하는 모습 등의 사진과 더불어, 국민협의회(Majelis Perwakilan Rakyat, MPR)에서 몇 대 대통령으로서 어느 부통령과 함께 선출되었는가 하는 연표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수하르토 체제가 경제정책의 일관된 집행으로 인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그것은 농촌개발과 각종 보조금을 통해 사회로 흘러 들어가 지지의 기반이 되었다는 ‘업적에 기반한 정당화’(performance legitimation; Liddle 1991) 논의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재임 기간 업적, 특히 경제성장과 개발의 업적이 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 기념관의 흥미로운 특징이다.

대신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수하르토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 발생한 1949년 족자카르타 공격, 파푸아 점령, 1965년 9월 30일(10월 1일)의 쿠데타 시도라는 세 가지 사건에 집중되어 있다. 1948년 12월 네덜란드가 무력으로 점령했던 독립 인도네시아의 임시 수도 족자카르타 수복 작전을 다룬 1949년 공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요새 박물관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인데, 여기에서도 디오라마 3세트와 당시 민족 독립의 열기를 보여 주는 포스터 등으로 상세히 다루는 한편 수하르토가 이끄는 부대의 역할이 공격의 절정을 이루었다고 기술하고 있다.<sup>25)</sup> 당시 ‘서부 이리안’(Irian Barat)이라고 불리던 파

25) 1949년 공격에 대해서는 족자카르타 술탄인 하멩쿠부워노(Hamengkubuwono) 9세가 수하르토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자신의 역할이 과소평가된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Jakarta Post 2001/03/31).



푸아 점령에 대해서는 수하르토 대통령이 침투 작전을 지휘했다는 사실과 수하르토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69년에 실시한 주민투표에 의해 파푸아가 인도네시아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당시 정권이 선별한 ‘주민 대표’들의 지장 또는 서명이 담긴 ‘투표용지’와 함께 보여 준다. 주민투표의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과 파푸아 합병에 있어 외교적 노력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수하르토의 역할을 다소 강조한 군부의 기념관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가장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일명 ‘G30S-PKI’라고 불리는 1965년 쿠데타와 공산당의 반역에 대한 전시이다. 군부의 공식 역사 서술과 마찬가지로 수하르토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공산당의 1948년 마디운 반란에서 시작하는 전시 내용은 1965년 이전에 공산당이 저지른 도발 행위들, ‘제5군’ 창설 준비 및 공산당 가맹 청년단·여성조직의 군사훈련 등 공산당의 무장, 1965년 10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시간대별 묘사, ‘루방 부아야’에서 끄집어낸 장군들의 처참한 시체 사진, 공산당에 대해 분노한 민중들의 시위로 이어지다 수카르노 대통령이 수하르토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는 1966년 3월 11일의 ‘수퍼세마르’(Supersemar)로 끝맺고 있다. 육군 공수부대가 대통령궁을 둘러싼 가운데 대단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발생하여 사실상의 쿠데타였던 것으로 알려진 수퍼세마르 즉 전권 위임 명령(Crouch 2007)에는 수하르토와 수카르노가 함께 유쾌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배치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10개 이상의 패널 전시 및 디오라마가 이어져 있는 한편 쿠데타 세력에게 살해당한 장군들의 초상이 형광 불빛에 의해 도드라진다. 또한 이 전시만을 위한 별개의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십 개의 화면에 채워진 텍스트의 내용은 주로 공산당이 쿠데타를 준비하는 과정에 관한

것으로 내용의 출처만 없을 뿐 단행본에 못지않게 상세하다.

수하르토 시대의 군부가 공식 기념물, 책, 영화 등을 통해 선전하던 반공민족주의적 역사관을 수하르토 가족이 소유한 막대한 자금과 터치스크린 등 새로운 기술을 동원하여 반복한, 소규모 전쟁기념관을 연상케 하는 이 기념관이 이러한 방식으로 기획된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수하르토 가족 구성원들의 단기적인 정치적 성공이 그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짐작할 수는 있다. ‘과거사 논쟁’은 현재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카르노 가족이 실권을 쥐고 있는 투쟁민주당도 영토민족주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공세적인 태도 딱히 1965년 사태에 대한 수정주의적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념관의 운영 주체가 정치 지도자로서 수하르토의 정당성을 경제성장 등의 업적에 두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며, 1966년의 ‘수피세마르’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구국의 영웅이라는 수하르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정당성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수하르토 기념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느 쪽도 수하르토에 대해 논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다. 기념관이 수하르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면, “불신자를 전향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지적(Rogers 2014)도 사실이지만, ‘불신자들’ 측에서도 가족이 운영하는 민간 시설인 수하르토 기념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실정이다. 1949년 족자카르타 공격에서 수하르토의 역할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이견들이 존재하지만, 역사학자들이 기념관의 전시 내용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파푸아 독립운동 세력이나 1965년 피해자 그룹도 수하르토 기념관에 대해서는 딱히 관심이 없으며, 수하르토 사건의 피해자들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하는 등 2010년 제안된 수하르토에게의 민족영웅 칭호 수여에 격렬하게 반대해 결국 좌절시킨

콘트라스 등의 인권단체도 수하르토 기념관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하르토 기념관은 아무런 비판을 받지 않은 채 편향적인 역사관으로 수하르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기능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4. 무니르의 집

‘오마 무니르’(Omah Munir)는 자바어로 ‘무니르의 집’이라는 뜻이다. 2013년 12월 인권운동가 무니르의 생일을 맞아 개관한 이 ‘기념관’은 무니르의 고향인 동부자바의 바투 시에 있다. 무니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자카르타에서 활동 중이었기 때문에 2001년경에 구입한 이 집에 실제로 거의 살지는 않았고, 2004년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날 당시 귀국하면 말랑의 대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살려고 사둔 집이었다고 한다. 무니르의 미망인인 수치와티(Suciwati)와 아이들이 종종 사용하던 이 집을 수치와티가 ‘오마 무니르’ 건립을 위해 기증하면서 기념관이 문을 열게 되었다.<sup>26)</sup> 이 기념관은 무니르 개인에 대한 추모를 넘어 그의 인권운동을 인도네시아 인권운동의 역사 속에 놓으며, 그가 활동을 시작했던 수하르토 말기 시대부터 민주화 초기까지를 인권운동의 언어로 조망하고 있다. 무니르의 집에 전시된 인도네시아 인권운동의 역사는 수하르토 시대의 인권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는 관의 공식 기념물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면서, 행위자성을 감춘 채 법적 언어로 피해를 증명하는 데 집중해 온 이제까지의 무니르 연대 운동을 비롯한 인권운동 그 자체에 대한 대안적 관점이기도 하다.

무니르는 말랑의 브라위자야대학교(Universtias Brawijaya) 법대를

---

26) 필자의 오마 무니르 관계자 인터뷰(2014/07/06).

졸업한 변호사로, 1990년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엔지오였던 법률구조재단(Lembaga Hukum Bantuan) 말랑 분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가 이후 수라바야, 자카르타로 영역을 넓혀 가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인권운동가로 부상하게 되었다(전제성 2013). 그의 유명세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1998년과 2004년이였다. 1998년은 상술했듯이 경제위기와 학생 시위, 폭동 등을 거쳐 수하르토가 마침내 하야를 선언한 해였는데, 무니르는 당시 자카르타에서 콘트라스(KontraS, 납치실종자 및 폭력피해자 대책위원회)라는 엔지오를 만들어 수하르토의 하야 이전부터 군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고발함으로써 여론을 뒤흔들었다. 무니르의 콘트라스 외에도 PBHI(인도네시아 법률구조 및 인권센터) 등의 엔지오가 육군 특수부대(Kopassus)에 의해 납치당했다 풀려난 정치활동가들에게 도움을 제공했지만, 무니르는 납치 피해자들에 그치지 않고 아르헨티나 등을 본따 실종자 가족들을 조직함으로써 여론에 호소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아체 등 수많은 다른 국가폭력 사건을 고발하며 민주화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인도네시아가 2004년 사상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 유력 후보인 아민 라이스(Amien Rais) 캠프의 검찰총장 내정자로 발표되고, 메가와티 대통령의 투쟁민주당(PDI-P)에서도 같은 제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그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Tempo 2014/12/14, pp. 100-101).

2004년 9월 네덜란드로 유학길을 떠났던 무니르는 비행기 안에서 고통스럽게 구토를 반복하다 사망함으로써 다시금 언론의 조명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실시된 부검에 의해 사인은 비소 중독으로 밝혀졌으나, 그를 계획적으로 독살한 범인을 밝혀내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무니르에게 접근해 음료 또는 음식에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여겨진 가루다항공 조종사 폴리카르푸스(Polycarpus)가 사건 즈음 국가정보원 사무실과 부원장 휴대전화로 수십 번 전화했다는 사

실을 포함하여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Badan Intelijen Negara, BIN)이 배후에 있다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포착되었지만 이는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폴리카르푸스 단 한 명뿐으로, 그가 20년형을 받은 것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이후에야 가능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 넘은 지금도 무니르가 세운 인권단체 콘트라스, 그리고 무니르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연대체 카숨(Kasum, 무니르를 위한 연대행동위원회) 등은 무니르 살인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를 활동의 주요 목표로 삼고 요구하고 있다. 무니르 사건을 무니르가 고발했던 수많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불처벌(impunity)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니르의 집이 전시하는 패널의 내용 중에는 ‘1998년의 무니르’에도, ‘2004년의 무니르’에도 들어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 1998년(콘트라스)과 2004년(암살 사건)에 대한 전시실은 작은 방에 각각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 원래 거실이었을 주 전시실의 내용은 ‘무니르의 투쟁’이다. 그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인권운동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정의를 찾아서’라는 영어 제목이 붙은 패널은 1966년에 얍 티암 힌(Yap Thiam Hien)과 폰츠크 프린첸(Poncke Princen)이 세운 인권단체 LP-HAM과 1970년 자카르타에 처음 만들어진 법률구조재단 등 인권운동의 태동을 설명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인권운동가라고 불릴 만한 얍 티암 힌의 일생에 대해 패널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다. 무니르의 집의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등의 공식적인 구조를 생략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느슨하게 만든 무니르의 집 공동체(Komunitas Omah Munir)인데, 이 중 자카르타 쪽 구성원들이 이 패널의 전시를 원했다는 것이 운영진의 설명이다.<sup>27)</sup>

다른 하나는 무니르가 자카르타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기 전, 동부

27) 필자의 오마 무니르 관계자 인터뷰(2014/07/06).

자바에서 보낸 20대 시절에 대한 설명으로서 무려 3개의 패널이 여기에 투여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무니르의 집이 동부자바에 있기 때문이라는 식의 ‘지역 안배론’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무니르가 동부자바 시절 관여했던 두 가지 사건은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수하르토 체제에 균열을 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이 기념관의 목적이 무니르 개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치를 인도네시아 인권운동 속에 놓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어느 관찰자는 지적한다(Hearman 2014).

1993년 9월의 니파(Nipah) 댐 사건은 동부자바주의 마두라 섬에서 댐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 네 명의 주민이 군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지역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1996년 뒤늦게 군사법정이 열려 현장에 있던 군인과 경찰들이 처벌되기도 했다. 그보다 더 널리 알려진 것은 1993년 5월 시체로 발견된 여성노동자 마르시나(Marsinah) 사건으로, 노사 대립에 개입하여 사측의 편의를 봐 주던 지역 군부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 때 (무니르 연대체와 마찬가지로) 줄여서 ‘카숨’이라고 불리는 ‘마르시나를 위한 연대위원회’의 결성에 무니르도 관여한 바 있다. 마르시나는 수하르토 체제와 군부에 반대하는 저항적 기억의 정치의 아이콘이 되었고, 1997년에는 ‘마르시나는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1인극이 상연을 금지당한 적도 있다. 2009년에는 여성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라디오인 ‘마르시나 라디오’가 개국하고, 2014년 메이데이 주간에는 ‘마르시나의 횃불’(Obor Marsinah)이라는 이름으로 자카르타에서 수라바야까지 자바를 횡단하는 순례단이 기획되는 등 인도네시아 노동계에서 마르시나가 점한 상징적 위상은 여전히 대체 불가능하다.

살해당해 버려진 여성노동자, 댐 반대시위 도중 총격을 당한 주민들, 납치당한 정치활동가들에 대해 폭로하고 이슈화한 인권운동에

대한 조망은 반공과 영토민족주의, 경제발전,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지도자로서 수하르토의 정당성이라는 수하르토 시대의 공식 담론에 도전하는 것임은 물론 인권운동의 기존 관습에 대한 대안의 제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무니르의 미망인 수치와티가 시작한 목요일집회(kamisan)는 매주 목요일 오후 국가폭력의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검은 우산 또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들고 대통령궁 맞은편에 모여 벌이는 침묵시위이다. 이 시위에서 피해자들의 정체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차원으로만 존재하고, 그 외의 차원은 모두 생략된다. 국가의 성격 역시 인권침해를 저지른 가해자이자 그것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법의 집행자라는 측면만 부각될 뿐이다. 이로써 국가에 대한 요구를 한 가지 차원으로 집중시키고, 공산당이나 약탈을 저지른 도시빈민 등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체성을 가리는 동시에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개별 피해자와 가해자 이외의 다른 정체성을 모두 생략한 채 오로지 불처벌 문제에만 집중하는 과거청산의 인권 프레임이 행위자성과 저항 등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 채 탈정치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Leebaw 2011)처럼, 목요일집회가 택한 방식의 인권운동은 다양한 정체성의 발현을 통한 다양한 정치적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인권운동가들의 행위자성을 복원한 무니르의 집은 목요일집회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인권운동 전반의 ‘인권 프레임’을 적절히 보완한다.

무니르 살인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감형을 받은 폴리카르푸스가 2014년 말에 가석방되면서 다시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폴리카르푸스의 가석방이 특히 주목을 끈 것은 그보다 1개월 전 조코위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메가와티가 여전히 총재로서 이끌고 있는 투쟁민주당의 후보인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자문단과 인수위원회에는 무니르 살인 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의 수장으로서

무니르 살인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있는 전직 장성 A.M. 헨드로프리오노(Hendropriyono)의 이름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단체와 일부 언론인들은 조코위 대통령의 인권 정책이 유도요노 대통령 시대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며 문제삼는 등 무니르 사건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무니르의 집이 전시하는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비껴가고 있다. 무니르의 사망에 대해 시간대별로 정리한 패널에서는 그가 살해당할 당시의 고통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증오가 담긴 전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니르의 집이 주로 내세우고 있는 전시는 어디까지나 1999년 동티모르 조사 당시 무니르가 입었던 방탄 조끼, 소탈한 무니르가 평소 오토바이를 탈 때 입던 자켓 등 희망적으로 투쟁하던 젊은 인권운동가 무니르의 행적이며, 이는 정치 엘리트의 권력 투쟁으로 환원되거나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저항의 역사를 드러낸다.

무니르의 집의 장래와 관련된 가장 큰 우려는 관람객의 부족으로 이러한 저항의 기억이 공유되지 못할 가능성이다. 말랑과 바투는 인기 있는 휴양도시인데다 두 도시의 인구만 합쳐도 백만 명이 넘으며, 집은 말랑의 주요 대학들과 바투의 관광 시설을 연결하는 길가에 있어 위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개관한 지 반년이 넘게 흐른 2014년 7월 필자가 방문했던 일요일에 관람객은 한 명도 없었고, 택시기사도 무니르의 집을 찾는 손님은 처음이라고 했다.<sup>28)</sup> 이러한 사정은 몇 달이 지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 관람객은 일주일에 50명 정도이고 대부분 대학생과 인권운동가로, 특정한 날에만 사람이 몰리는 형편이라고 한다(Tempo 2014/12/14, pp. 116-117).

무니르의 명성 탓에 무니르 관련 사업에 고위층과 명망가를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다. 무니르의 집 개관 당시에는 아시아 재단, TIFA 등 주요 재단과 엔지오에서 기부가 들어왔고,<sup>29)</sup> 개관 행

28) 필자의 오마 무니르 방문 당시 필드노트(2014/07/06).



사에는 국회의원과 바투 시장, 법무부 인권국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Tosca 2013). 2014년 대선을 앞두고 자카르타에서 열린 무니르의 집 관련 행사에서도 인도네시아 음악계의 스타인 기기(Gigi) 밴드와 글렌 프레들리(Glenn Fredly)가 공연하는 등<sup>30)</sup> 명망가들의 도움의 손길은 끊이지 않았고, 따라서 기부에만 의존한다고 해도 무니르의 집이 당장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은 다른 대안적 기념관에 비해 적은 편이다. 그러나 무니르의 기억이 ‘반쪽의 기억 그 이하’로 전락하지 않고 소수의 명망가, 활동가, 언론인을 넘어 일반 대중에게 공유되고 재해석되려면, 관람객 확보를 위한 인권 관련 행사 개최 등 운영 주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인권 교육을 통한 저변 확대 전략을 기획하는 인권운동 전반의 역량이 요구된다.<sup>31)</sup>

#### IV. 나가며

2015년 2월 7일, 남부수마트라의 람퐁에서는 1989년 2월 7일의 ‘탈랑사리(Talangsari) 학살’ 사건 추도비의 착공식이 간소하게 열렸다. 군부가 이슬람 강경파 그룹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을 공격하여 130명 이상을 살해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08년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며 인권법정에서 가해자들을 기소할 것을 권고했지만,

29) 필자의 오마 무니르 관계자 인터뷰(2014/07/06).

30) 필자의 오마 무니르 개최 행사 방문 당시 필드노트(2014/07/02). 이 행사는 무니르의 삶을 다룬 신간 만화책의 출판기념회를 겸하는 자리였다.

31) 오마 무니르의 운영 주체도 토론회, 상영회 등을 통해 이곳을 ‘인권 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이 집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Tempo 2014/12/14). 2014년 인권의 날에는 1965년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은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신작 *Senyap*을 상영하기도 했다(Miski 2014).

사건을 수사하고 법정을 세워야 할 검찰과 정치 엘리트는 1965년 사태 등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외면하고 있다.<sup>32)</sup> 민주화 직후 인도네시아 인권운동가들과 피해자들은 ‘과거사’ 사건을 다루는 제도로서 임시인권법정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대통령과 국회가 임시인권법정의 설립을 권고한 것은 단 1차례였으며, 피의자들은 상급심에서 모두 풀려났다.<sup>33)</sup> 인권운동가들의 일부는 재판보다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더 알맞은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진실화해위원회법 역시 정치 엘리트의 무관심 속에 표류되었다.<sup>34)</sup> 이처럼 관 주도 과거청산의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밝혀진 지금, 인권단체와 피해자들이 기념물·기념관·기념행사 등을 통한 기억의 정치라는 ‘장기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놀랍지 않은 결과이다.

1998년 5월 바늘 기념비, 무니르 기념관, 아체의 추모비와 위령탑, 트리삭티대학교의 각종 기념물은 모두 국가가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운데 민간이 건립한 기념물로서, 이들 기념물에는 ‘망각에 저항’(melawan lupa)하면서 과거의 비극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생산·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무니르의 집은 인도네시아 인권운동의 입장에서 불처벌 관행에 대항한다는 법적 요구를 넘어 수하르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운동사적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장기전의 포석을 놓는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바늘 기념비는 조형물 자체로는 매우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향후 1998년 5월의 기억이 지방

32) 조코위 대통령의 자문위원이었던 A.M. 헨드로프리오노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주화 이후 그는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고 화해의 서약을 맺는 이슬라(islah)를 거행하기도 했다.

33) 1999년 동티모르 민병대의 선거 폭력과 1984년의 탄중프리오옥(Tanjung Priok) 사건에 대한 임시인권법정 설립이 같이 처리된 바 있다. 인권법정은 상설기관이지만 2000년 인권법정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의 법정 설립 승인이 필요하다.

34) 조코위 대통령 취임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법이 2015년 국회가 심의할 법안 목록에 포함되고,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해결을 위한 관련부처의 팀이 결성되는 등 새로운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정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편입되거나 2014년 대선에서처럼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활용된다면 제작자가 예상하지 못한 논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기념물에는 공식 기념물에 비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망각되어 버릴 위험성도 있다. 대안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 실패한 아체 인권박물관과 ‘65년 정원’은 이러한 위험성을 잘 드러내는 사례이다. 무니르의 집은 이들 기념관에 비하면 운영 여건이 안정적이고, 언론 보도 등의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안적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의 공식 기념물에 비해 민간 기념물을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점은 민간 기념물이 편향된 관점을 확대·재생산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학살 등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공산당의 배신만을 강조하는 수하르토 시대 관제 기념물의 내러티브를 답습하는 수하르토 기념관이 그 예로, 만일 국가 예산이 투입되었더라면 ‘과거사’에 대한 민주적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로서 전시 내용에 대한 논쟁은 전무하다. 민주화 이후 자유롭게 분출될 수 있게 된 과거사에 대한 논쟁적 기억과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결국은 민주주의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기념물에 대한 한 연구는 이들이 언제나 “정치적 투쟁의 결과”이자, 분열적인 정치적 과거를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의미의 충돌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적으로 정치적이면서, 처음 제안한 것이 누구이든 간에 기념물이 성공하려면 공공성을 획득하고, 정부의 결정과 자원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Jelin 2007, 147). 수카르노의 교도민주주의 체제와

수하르토의 신질서 체제 하에서 수많은 기념물이 건설된 것을 고려한다면(Anderson 1990)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공식 기념물이 부재한 상황은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민간 기념물이 그 자체로서 활발한 사회적 논쟁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공식 기념사업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지원. 2012. “시체 구덩이와 조명: 인도네시아 ‘65년 사태’와 뻘짜 실라 기념비.” 『아시아저널』 제6호: 193-219.
- \_\_\_\_\_. 2013. “쓰나미와 전쟁을 딛고: 새로운 아체를 향한 희망은 가능한가?” 『아시아저널』 제7호: 265-299.
- 야마다 쇼지. 이진희 역. 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서울: 논형.
- 전제성. 2013. “무니르의 생애로 본 인도네시아의 사회운동과 민주화.” 『사회과학연구』 37(1): 1-35.
- 전진성. 2005.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억의 문화사』. 서울: 휴머니스트.
- 정근식. 2013. “한국에서의 사회적 연구 기억의 궤적: 다중적 이행과 지구사적 맥락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13(2): 347-394.
- 하상복. 2014. 『죽은 자의 정치학: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서울: 모티브북.
- Allen, Pam. 2001. “The Suharto Museum.” Inside Indonesia 68. <http://www.insideindonesia.org/the-suharto-museum> (검색일: 2015.02.11)
- Anderson, Benedict R. O’G. 1990. “Cartoons and Monuments: The

- Evolution of Political Communication under the New Order.”  
Language and Power: Exploring Political Culture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52-193.
- Andreas Nugroho. 2013. “Mengapa ‘Merindukan’ Sosok Suharto?”  
BBC Indonesia 11월 25일. [http://www.bbc.co.uk/indonesia/laporan\\_khusus/2013/11/131125\\_lapsus\\_suharto\\_baju\\_dan\\_museum](http://www.bbc.co.uk/indonesia/laporan_khusus/2013/11/131125_lapsus_suharto_baju_dan_museum) (검색일: 2015.02.11)
- Asvi Warman Adam. 2005. “1965: The Year That Never Ended.”  
Dewi Fortuna Anwar et al. (eds.), *Violent Internal Conflicts in Asia Pacific: Histories, Political Economies and Policies*.  
Jakarta: Yayasan Obor Indonesia. 26-40.
- Bagus Kurniawan. 2013. “Monumen Soeharto Diresmikan di Bantul.”  
Detik 3월 1일. <http://travel.detik.com/read/2013/03/01/150818/2183388/1382/1/monumen-soeharto-diresmikan-di-bantul> (검색일: 2015.02.11)
- Bickford, Louis. 2007. “Uofficial Truth Projects.” *Human Rights Quarterly* 29(4): 994-1035.
- Bilbija, Ksenija and Leigh A. Payne. 2011. “Time Is Money: The Memory Market in Latin America.” Ksenija Bilbija and Leigh A. Payne (eds.), *Accounting for Violence: Marketing Memory in Lati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40.
- Collins, Cath. 2011. “The Moral Economy of Memory: Public and Private Commemorative Space in Post-Pinochet Chile.” Ksenija Bilbija and Leigh A. Payne (eds.), *Accounting for Violence: Marketing Memory in Latin Americ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35-263.
- Crouch, Harold. 2007. *The Army and Politics in Indonesia*. Jakarta:

Equinox.

Dwyer, Leslie. 2011. "Building a Monument: Intimat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Post-1965 Bali." Alexander Laban Hinton (ed.), *Transitional Justice: Global Mechanisms and Local Realities after Genocide and Mass Violence*.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227-248.

[Hayner 삭제]

Hearman, Vanessa. 2014. "Remembering Munir." *Inside Indonesia* 115. <http://www.insideindonesia.org/remembering-munir> (검색일: 2015.02.11)

Hera Diani. 2001. "Ester Wages War against Scourge of Discrimination." *The Jakarta Post* December 30.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1/12/30/ester-wages-war-against-scourge-discrimination.html> (검색일: 2015.02.11)

Huyse, Luc. 2003. "Victims." David Bloomfield, Teresa Barnes, and Luc Huyse (eds.), *Reconciliation after Violent Conflict: A Handbook*. Stockholm: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54-65.

Indah Setiawati and Corry Elyda. 2014. "Dead of May 1998 to Be Memorialized." *The Jakarta Post* April 3.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4/04/03/dead-may-1998-be-memorialized.html> (검색일: 2015.02.11)

Jakarta Post.

Jelin, Elizabeth. 2007. "Public Memorialization in Perspective: Truth, Justice and Memory of Past Repression in the Southern Cone of South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1): 138-156.

- Junaidi, A. 2006. "Ester Jusuf: Tireless Rights Campaigner." Jakarta Post June 4.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06/06/04/ester-jusuf-tireless-rights-campaigner.html> (검색일: 2015.02. 11)
- Kementerian Koordinator Bidang Kesejahteraan Rakyat. 2013. "Menko Kesra Hadiri Peresmian Museum Soeharto dan Tahlil di Solo." <http://2010.kemenkopmk.go.id/content/menko-kesra-hadiri-peresmian-museum-soeharto-dan-tahlil-di-solo> (검색일: 2015.02.11)
- Kent, Lia. 2011. "Local Memory Practices in East Timor: Disrupting Transitional Justice Narra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5(3): 434-455.
- Komnas Perempuan. 2011. "Lembar Fakta Tragedi Mei 1998." <http://www.komnasperempuan.or.id/publikasi/Indonesia/2011/mei/Lembar%20Fakta%20Tragedi%20Mei%201998.pdf> (검색일: 2015.02.11)
- Kompasiana.
- Kusno, Abidin. 2010. *The Appearances of Memory: Mnemonic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Urban Form in Indonesia*.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Leebaw, Bronwyn Anne. 2011. *Judging State-Sponsored Violence, Imagining Political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ddle, R. William. 1991. "The Relative Autonomy of the Third World Politician: Soeharto and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4): 403-427.
- McGregor, Katharine E. 2007. *History in Uniform: Military Ideology*

- and the Construction of Indonesia's Past. Singapore: NUS Press.
- Miski. 2014. "Pemutaran Senyap di Omah Munir Lancar." *Malangtimes* 12월 10일. <http://malangtimes.com/berita/10122014/18273/pemutaran-senyap-di-omah-munir-lancar-2.html> (검색일: 2015.02.11)
-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and New York: Verso.
- Mustafa Kamal. 2012. "Tugu Simpang KKA Jadi Icon Kepiluan Aceh 12 Tahun Silam." *Waspada* 2월 4일.
- Payne, Leigh A. 2008. *Unsettling Accounts: Neither Truth nor Reconciliation in Confessions of State Violence*.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Pebriansyah Ariefana. 2014. "Kenang Korban Mei 1998, Gedung di Utan Kayu Ini Diberi Nama 13-14 Mei." *PortalkBR* 5월 16일. [http://www.portalkbr.com/berita/nasional/3247655\\_4202.html](http://www.portalkbr.com/berita/nasional/3247655_4202.html) (검색일: 2015.02.11)
- Persiana Galih. 2014. "Trisakti Bangun Monumen Reformasi 1998 di Grogol." *Tempo.co* 11월 11일. <http://www.tempo.co/read/news/2014/11/11/083621089/Trisakti-Bangun-Monumen-Reformasi-1998-di-Grogol> (검색일: 2015.02.11)
- Purdey, Jemma. 2006. *Anti-Chinese Violence in Indonesia, 1996-1999*.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 Reading, Anna. 2011. "Identity, Memory and Cosmopolitanism: The Otherness of the Past and a Right to Memory?"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4(4): 379-394.
- Rhoads, Elizabeth. 2011. "'Like a Pebble in Their Shoe': Unofficial



- Truth Projects in Aceh, Indonesia.” Unpublished MA thesis, University of London.
- Rogers, Cory. 2014. “Museum Places Soeharto as Warden of the Young Republic.” *The Jakarta Post* November 10.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4/11/10/museum-places-soeharto-warden-young-republic.html> (검색일: 2015.02.11)
- Schreiner, Klaus H. 1997. “History in the Showcase: Representations of National History in Indonesian Museums.” Sri Kuhnt-Saptodewo, Volker Grabowsky, and Martin Grossheim (eds.), *Nationalism and Cultural Revival in Southeast Asia: Perspectives from the Centre and the Region*. Wiesbaden: Otto Harrassowitz. 99-118.
- Septiana Ledysia. 2014. “Kenang Peristiwa Mei 1998, Tugu 12 Mei Dibangun di Depan Kampus Trisakti.” *Detik* 11월 11일. <http://news.detik.com/read/2014/11/11/162917/2745336/10/kenang-peristiwa-mei-1998-tugu-12-mei-dibangun-di-depan-kampus-trisakti?9922032> (검색일: 2015.02.11)
- Sidel, John T. 2006. *Riots, Pogroms, Jihad: 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Slamet Susanto and Bambang Muryanto. 2013. “Visitors Flock to Soeharto Memorial after Opening.” *Jakarta Post* June 10. <http://www.thejakartapost.com/news/2013/06/10/visitors-flock-soeharto-memorial-after-opening.html> (검색일: 2015.02.11)
- Tai, Hue-Tam Ho. 2001. “Introduction: Situating Memory.” Hue-Tam Ho Tai (ed.), *The Country of Memory: Remaking the Past in Late Socialist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17.

Tempo.

- Thufail, Fadjar Ibnu. 2007. "Figures in the May 1998 Riots: Imagining the State in Post-New Order Indonesi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Timi Trieska Dara. 2014. "Ahok Hadiri Peletakan Batu Pertama Prasasti Tragedi 98." *Metrotvnews.com* 5월 18일. <http://news.metrotvnews.com/read/2014/05/18/242922/ahok-hadiri-peletakan-batu-pertama-prasasti-tragedi-98> (검색일: 2015.02.11)
- Tosca Santoso. 2013. "Omah Munir: Saatnya Mempopulerkan Pahlawan Seperti Munir." *PortalKBR* 12월 8일. [http://www.portalkbr.com/opini/opinianda/3049871\\_4308.htm](http://www.portalkbr.com/opini/opinianda/3049871_4308.htm) 1 (검색일: 2015.02.11)
- Vickers, Adrian. 2010. "Where Are the Bodies: The Haunting of Indonesia." *The Public Historian* 32(1): 45-58.
- Wilke, Christiane. 2013. "Remembering Complexity? Memorials for Nazi Victims in Berlin."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7(1): 136-156.
- Williams, Paul. 2007. *Memorial Museums: The Global Rush to Commemorate Atrocities*. Oxford and New York: Berg.
- Winter, Jay. 1995. *Sites of Memory, Sites of Mourning: The Great War in European Cultural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ung, James E. 1997. "Germany's Problems With Its Holocaust Memorial: A Way Out of the Quagmire?"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October 31.

(2015.02.16.투고, 2015.04.01.심사, 2015.05.12.게재확정)

<국문초록>

## 민간 기념물과 논쟁적 기억: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 지 원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 건립된 민간(unofficial, 비공식) 기념물에 관한 이 연구는 민간 기념물이 촉발할 수 있는 정치적 논쟁 또는 그 부재, 민간 기념물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 등을 살펴봄으로써 민간 기념물의 위상 및 관 주도 기념물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 연구는 2009년 자카르타에 건립된 ‘1998년 5월 바늘 기념비’, 2013년 족자카르타 반톨에 건립된 수하르토 기념관, 2013년 동부자바 바투에서 문을 연 ‘무니르의 집’ 등 3건의 민간 기념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가 과거의 고통을 외면하는 가운데 민간이 건립한 기념물에는 망각에 저항하면서 과거의 기억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생산·재생산하려는 대안적 의도가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정치적 변화에 따라 설립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이 건립하여 관리하는 기념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논쟁적 기억을 촉발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념물의 의도가 정치적으로 망각되거나 편향된 진실만을 옹호하는 정치적 양극화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민간 기념물이 공식 기념사업을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어 공공성 획득에 성공할 경우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념물, 민간 기념물, 인도네시아, 1998년 5월 사태, 수하르토, 무니르

<Abstract>

## Unofficial memorials and contentious memories: the case of post-reformasi Indonesia

Ji-Won Suh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hed light on unofficial memorials - monuments and museums - and their relations with official memorials, focusing especially on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debates (or none) to be facilitated by such memorials and alternative meanings created by them. The three case studies from post-reformasi Indonesia are on 1) Prasasti Jarum Mei 1998 (May 1998 needle monument), built in Jakarta in 2009, 2) Museum Soeharto, built in Bantul, Yogyakarta in 2013, and 3) Omah Munir (Munir House), built in Batu, East Java in 2013. Where the state fails to engage the past, non-state actors build monuments and museums to resist forgetting, as well as to produce and reproduce social debates on the memories of the past, which may take unintended courses as the political circumstances change. However, it is not always the case that contentious memories - an indicator of healthy democracy - follow such memorialization initiatives, not least because they are built and managed by non-state actors with limited resources. Rather, the political meanings of such initiatives are often marginalized and forgotten; what is

worse, they can be used as tools of political polarization, only supporting unbiased, partisan ‘truths.’ Such courses are likely to be avoided when unofficial initiatives eventually become successful with facilitating official memorialization projects and raising public concerns over the past.

***Key words*** : monuments, unofficial monuments, Indonesia, May 1998, Soeharto, Munir

